

# 12

## 우리는 모두 예술가



◆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해 봅시다.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천 문화 마을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



양평 전통 시장 라온 마당의 기둥들



한전 울산 언양 변전소 벽화



광화문 복원 공사 가림막 「광화에 뜬 달」

## 회색 도시를 바꾼 예술가들

회색 도시 한복판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애 이름은 '미라'인데,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걸 좋아했지요. 미라의 방은 색색의 그림으로 채워졌고 미라의 마음속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미라는 학교 가는 길에 상점 주인인 헨리 아저씨를 만나 동그란 사과 하나를 주었어요. 유난히 눈이 반짝이는 로페즈 아줌마에게는 꽃 한 송이를 주었지요. 미라는 삭스 아저씨에게 노래하는 새를 주고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보는 경찰 아저씨에게는 빨간 하트를 선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그늘진 담벼락에 반짝이는 태양을 붙여 놓았어요. 도시의 칙칙한 회색빛이 좀 가셨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미라는 주머니 한가득 붓을 꽂은 아저씨를 보았어요. 아저씨는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가 싶더니 미라가 붙여 놓은 태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고는 그 사이로 태양을 관찰했어요.

“뭘 보고 계세요?”

미라가 묻자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어쩌면 뭔가 아름다운 게...”

그러더니 아저씨는 물감 통에 붓을 담갔어요. 번쩍! 휘리릭! 어두운 그림자들이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파란 하늘빛이 칙칙함을 헤치고 들어왔어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예술가란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지.”

“나도 예술가인데요!”

그러자 아저씨가 미라에게 붓을 건넸어요.

미라는 가장 화려한 색깔에 붓을 푹 담갔어요. 아저씨가 벽돌에 그림을 그리면 미라는 색칠을 하고,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곧 삭스 아저씨도 함께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지요. 미라 엄마도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이웃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동네 파티가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경찰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음악이 푹 그쳤어요. 미라는 붓을 내려놓았지요. 경찰 아저씨는 목을 킁킁거리더니, 잠시 잠잠했어요.

“저도 같이 그려도 될까요?”

그 물음에 대답하듯 미라는 경찰 아저씨에게 붓을 건넸어요. 신나는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지요. 선생님들도 아빠들도 뛰어들었어요. 미라와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붓을 자꾸자꾸 나눠 주었어요. 온 거리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미라와 아저씨가 가는 곳마다, 실을 맨 연처럼 아름다운 그림들이 따라다녔어요. 벽을 다 칠하고 나서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벤치를 칠했어요. 보도에는 시를 적고 햇살을 그려 넣었지요. 그리고 모두 모두 춤을 추었어요.

여럿이 함께하니, 지금껏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 옷마다 온갖 빛깔이 튀고 알록달록 물들었을 때 이젠 좀 쉬어야겠다고 모두 자리에 앉았지요. 화가 아저씨만 빼고요. 아저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술가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의 캔버스랍니다!”



1 「회색 도시를 바꾼 예술가들」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미라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색 도시의 벽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2 화가 아저씨가 “여러분은 모두 예술가예요!”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2 회색 도시를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 써 봅시다.

도시의 원래 모습	생기 없는 칙칙한 회색 도시
사람들의 노력	
도시의 변화된 모습	온 거리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고, 기쁨도 함께 퍼져 나갔다.

3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가시다	뜻	
	문장	

4 공공 미술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하며 「동피랑 마을」을 읽어 봅시다.

동피랑 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언덕 위 마을 ‘동피랑’이란 이름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다.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피랑 마을에 오르면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끈다.




통영시는 낙후된 마을을 철거하여 동포루를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마을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주민들은 2007년 공공 미술의 가치를 걸고 벽화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단체, 여러 시민 단체, 봉사 단체, 지역 예술가 등 18개의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 것을 시작으로 동피랑 마을은 벽화로 꾸며졌다.

동피랑 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자 통영시는 마침내 동포루 복원에 필요한 마을 꼭대기의 집 3채만을 헐고 마을 철거 방침을 철회하였다. 철거 대상이었던 동피랑 마을은 현재, 벽화로 인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2년마다 주민 회의를 통해 새로 그리거나 보수할 벽화 축제의 주제도 정해서 진행한다. 그동안 낙후 지역, 달동네로 인식되던 동피랑이 통영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골목 마을이 되었다.

5 우리 주변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곳을 찾아 계획서를 써 봅시다.



###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위한 계획서

계획자	_____ 초등학교 5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장소나 대상	
이유	
꾸미고 싶은 특징	
그림	



### 배움 다지기

-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읽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나요?

